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경제]

- CNBC: JP모건, “이민이 미 경제 진작시키지만 과소 평가돼”

[미국 금융]

- WSJ: 모기지율, 앞으로 예상 보다 높은 것으로 보여

[미국 대선]

- JP모건: 미 대선 관전 포인트

[뉴욕시]

- NYDailynews: 뉴욕시민 78%, “밤에 전철 타면 불안감 느낀다”

[글로벌 경제]

- WSJ: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직접투자 계속 감소한다
- CNBC: 글로벌 공해배출세 도입 임박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- WSJ: 연방거래위원회(FTC), 대형 식료품점의 영향력 이용 행위 적발
- WSJ: Nikola, 공급망 차질로 수소트럭 생산 난항
- Bloomberg: United 항공, 승객의 로열티 마일리지 적립 및 공유 허용
- Bloomberg: Toyota, ‘엔진 스캔들’ 이후 직원 교육 및 문화 변화 약속

[기업 보고서]

- HBR: 지속가능한 상품 매출 방법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정보

[미국 경제]

CNBC: Immigration is boosting the U.S. economy and has been ‘really underestimated,’ says JPMorgan research head
JP모건, “이민이 미 경제 진작시키지만 과소 평가돼”

- 이번 주 수요일 연준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2월의 전망치 1.4%에서 2.1%로 상향조정했다.
-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1월과 2월의 인플레이션 물가가 잡히고 있다는 예상을 무색케 하고 있다.
- 이 같은 미 경제의 강세 가운데 JP모건의 조이스 장 글로벌 연구 책임자는 이민의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했다.
- 그는 2년 전에 비해 미국 인구가 6백만명이 더 늘었다며 “실업률이 낮은 상황을 보면 이민자가 소비의 상당 부분을 늘렸다고 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미국 금융]**WSJ: The New Normal for Mortgage Rates Will Be Higher Than Many Hope****모기지율, 앞으로 예상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**

- 올해 말에 미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주택 모기지 금리는 이를 쉽게 따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.
- Fannie Mae나 Freddie Mac 같은 정보 보증 기관이 발행한 모기지 담보 증권을 소유하기 위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국채 대비 추가 수익률(스프레드)은 작년 최고치에서 약간 하락했다. 그러나 여전히 역사적인 수준까지 좁혀지지 않았다. 더 넓은 스프레드가 모기지 시장의 새로운 표준(뉴 노멀)이 될 것 같다. 즉, 주택 구매자들은 계속해서 높은 이자율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WSJ 기사

[미국 대선]**JP모건: 2024 US Election Watch****미 대선 관전**

- 민주당이 하원을, 공화당이 상원을 각각 근소한 차이로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.
- 바이든은 특별한 건강 문제가 아닌 한 계속 경선을 하게 될 것이다. 트럼프는 각종 범죄가 그의 경선을 막지 못할 것이다. 미국의 대통령 출마 자격은 아래 3가지 뿐. 35세 이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, 미국에서 적어도 14년 이상 거주하면 된다.
- 공화당의 상원에서 우위를, 민주당은 하원에서 우위를 점하게 되는데 각각 매우 근소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.
- 트럼프는 경합 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초기 조사 결과가 마지막 경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.
- 트럼프는 흑인과 남미 유권자를 타깃을 해서 표를 모으고 있다.
- 국경 안보 이슈는 선거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. 아이티의 위기와 위협은 대략 이주를 야기시킬 수 있는 리스크이다.
-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미중 관계야 더욱 매파적인 입장을 가져올 수 있어 무역과 투자 전망에서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.
- 중동 사태가 바이든에게 정치적인 취약점이 되고 있다.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이 가능하지만 북부와 웨스트뱅크(서안 지구)의 갈등 리스크가 있

다.

- 트럼프 재집권 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현상이 나올 수 있지만 미국과 유럽 경제 관계는 같듯이 될 수 있다.
- 트럼프 재집권 시 2017년 세금 감면이 계속될 수 있으며 보다 공격적인 반독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. 그러나 FTC와 법무부 같은 규제 기관을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.

JP 모건 원본

[뉴욕시]

NYDailynews: 78% say NYC subway not safe at night, 24-point bump since 2017: poll

뉴욕시민 78%, “밤에 전철 타면 불안감 느낀다”

- 뉴욕시민들의 공공 안전과 삶의 질에 대한 평가는 지난 2017 때보다 작년에 크게 떨어졌다. 시민의 78%가 밤에 전철을 이용할 때 안전하지 않다고 느낀다는 것.
- 응답자 30%만이 뉴욕시 삶의 질을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는 2017년보다 21% 감소했다. 이는 특정 정당과 관련없는 중립적인 기관이 Citizens Budget Commissions가 6천6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다.

NYDailynews 기사

[글로벌 경제]

WSJ: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Continues to Fall

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직접투자 계속 감소한다

-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규모가 올해 첫 두달간 감소했다. 지속적인 부동산 문제와 국내 수요의 감소 상황에서 중국 경제가 정책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.
- 중국은 올해 첫 두달간 총 2백98억8천만달러의 외국인직접투자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9.9% 줄어든 수치다.
- 중국 상무부는 “올해 이같은 약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동안 여전히 3번째로 높은 수치”라고 설명했다.

WSJ 기사

CNBC: World's first-ever global emissions tax takes a step closer to reality

글로벌 공해배출세 도입 임박

- 금요일 런던에서 2주간의 국제해사기구(IMO) 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, 대부분의 국가가 세계 최초의 글로벌 공해배출세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의 34개국에서 보편적 온실가스 가격제에 지지를 표명했으며, 이는 2023년 마지막 회담에 비해 크게 높아진 지지도이다.
- 해양보존협회(Ocean Conservancy)의 Sandra Chiri는 “UN이 세계 최초의 글로벌 공해배출세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, 이 정책은 각국의 참여가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.”고 말했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동향]

WSJ: FTC Finds Large Grocers Used Size to Stock Shelves During Pandemic**연방거래위원회(FTC), 대형 식료품점의 영향력 이용 행위 적발**

- 연방거래위원회가 대규모 식료품점이 팬데믹 동안 진열대의 재고 유지를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활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했다. 규모를 활용해 제품 부족 및 유통 병목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규모 경쟁 소매업체들보다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냈다는 것.
- 목요일 발표된 연방거래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소매업체들은 그들의 규모를 활용하여, 식품 및 가정용품 공급업체에 더 엄격한 배달 요건과 벌금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. 또한, 벌금을 피하고자 많은 공급업체들이 더 많은 상품을 대형 소매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송한 점도 보고서에서 지적됐다.
- 연방거래위원회 의장 Lina Khan는 “지배적 기업이 이 기회를 활용하여,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뮤니티 및 경쟁사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득을 봤다.”고 말했다.

WSJ 기사

WSJ: Nikola's Rollout of Hydrogen Trucks Is Hitting Supply-Chain Hurdles**Nikola, 공급망 차질로 수소트럭 생산 난항**

- 공급망 부족으로 니콜라의 수소 대형 굴착장비 출시가 지연되고 있다.
- 니콜라의 최고 경영진 Steve Girsky는 가압 연료 탱크 및 전기 배터리 부족으로 트럭 운전사를 위한 최신 무공해 기술 생산이 늦춰지는 상황이라 설명했다.
- 무공해 대형 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니콜라의 고민은 커지고 있다. 특히, 새로운 배기가스 규제 및 높은 보조금으로 인해 무공해 대형

트릭 Class 8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해당 문제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.

WSJ 기사

Bloomberg: United Air Allows Passengers to Pool and Share Loyalty Miles

United 항공, 승객의 로열티 마일리지 적립 및 공유 허용

- 유나이티드 항공사가 승객에게 로열티 마일리지 적립 및 공유를 허용하는 최초의 미 항공사가 됐다.
- 목요일부터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최대 5명으로 구성될 수 있는 ‘마일리지 플러스 고객’ 그룹에 마일리지 공유 및 교환을 허용했다.
- 해당 제도에 양적 제한은 없으며, 유나이티드 로열티 프로그램의 회원 등급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.

Bloomberg 기사

Bloomberg: Toyota Unit Vows Training, Cultural Changes After Engine Scandal

Toyota, ‘엔진 스캔들’ 이후 직원 교육 및 문화 변화 약속

- 내부감사를 통해 엔진 제조자들이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거의 2달 만에, 도요타가 기업 문화 및 리더십 구조를 재구축할 것이라 선언했다.
- 최고경영자 Koichi Ito가 일본 교통부에 전달한 금요일 성명을 통해, 도요타는 고위 경영진을 교육하고 공장 노동자들의 우려가 전달될 수 있는 공식 라인을 구축하여 법률 준수를 기업의 최우선 순위로 둘 것이라 설명했다.
- 도요타 그룹 의장 Akio Toyoda는 해당 스캔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의 전체 조직이 “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Bloomberg 기사

[기업 보고서]

HBR: How to Market Sustainable Products

지속가능한 상품 마케팅 방법은?

기업은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마케팅할 때, 소비자가 사회 및 환경적 혜택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.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, 즉 스스로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둘 때만 지속가능한 제품을 찾는다.

다음은 HBR에서 제작한 지속가능성 마케팅 가이드이다. 소비자가 제품과 지속가능성의 상대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HBR 원문

번역/요약본

[보고서]

美 2월 기존주택 판매 전월대비 9.5%↑...대출금리 하락 여파

연말연초 미국의 주택대출 금리가 하락하면서 미국의 주택 거래가 지난달 들어 1월 대비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.

21일(현지시간) 미 부동산중개인협회(NAR)에 따르면 2월 미국 기존주택 매매 건수는 438만건(계절조정 연율 환산 기준)으로 전월 대비 9.5% 증가했다. 다만, 작년 2월과 비교해서는 3.3% 감소했다.

미 주택시장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들어 금융위기 여파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던 2010년 이후 1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바 있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, New York, NY 10022

[Unsubscribe office@kocham.org](mailto:office@kocham.org)

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

Sent by office@kocham.ccsend.com